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 ...세계 7대 우주강국 한 발짝



▲ 누리호 발사 장면.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I)' 발사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7대 우주강국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단 인공위성을 목표궤도인 지상 700km에 안착시키

는 것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2분 후 59km 지점에서 1단 추진체가 분리됐다. 이어 약 4분 뒤 191km 지점에서 위성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고, 4분34초 뒤 258km 상공에서 2단 로켓엔진도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이후 3단 로켓의 추진력으로 인공위성 투입 고도인 지상 700km 인근까지 우주공간을 비행한 누리호는 실고 있던 위성모사체(dummy)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으나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인 우주 선진국들도 자체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의 성공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날 단 첫번째 누리호 발사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누리호는 엔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300개 한국 기업이 참여해 완성했다.

한국은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이어 열 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목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킬 경우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1t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가 된다.

김장철 앞두고 김장 채소 산지 폐기



김장철을 앞두고 제때 수확하지 못한 무와 배추가 산지에서 폐기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과 농촌 인력난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한 배추 농가는 농기계를 이용해 그간 정성껏 재배해오던 배추로 가득했던 배추밭을 갈아엎었다. 이 농가는 지난 6월 하순에 배추를 파종했으며 지난 추석쯤 수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수확이 늦어졌고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 결국은 배추가 썩고 말았다.

수확철에도 판로와 인력난 등으로 배추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홍천군 내면 울전리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전성구 농민은 "밭에도 오기 싫는데 어차피 수확하지 못한 배추를 갈아엎어야 내년엔 병충해가 덜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배추밭을 갈아엎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무도 상황은 비슷하다.

판로가 안정적이라는 계약 재배도 산지 폐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마을에 있는 무들은 20일 전에 출하됐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나가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계약 재배 농민들은 계약대금의 절반 정도인 선금금마저 일부 반납해야 할 처지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는 산지 폐기 위기에 처한 계약 재배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 농자금 상환 유예를 건의하는 한편, 남은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해 온라인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민간 손잡고 청년일자리 만들기 박차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4대 그룹 총수를 만나며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지난 21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했다. 이는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주력하고 있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그룹 총수와 두 번째 만남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G그룹은 3년간 3만 명의 직접 채용을 포함해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향후 3년간 직접채용으로 연간 1만 명씩 총 3만 명을 뽑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 지

원 및 육성을 통해서도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LG그룹의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분야 1,500억 원 투자로 3년간 2,000개 ●채용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기존 SW(소프트웨어) 광학, 스마트융합 분야에서 배터리와 인공지능 전공까지 확대해 5,800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와 지역 청년 혁신가를 키우는 '로컬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1,2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LG그룹은 올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중단, LX그룹 분리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10% 확대한 매년 1만 명대의 고용을 발표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